

며, 실시내용중 체질검사 측정보다는 체격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 치중되어 있었다.

(8) 정기신체검사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대학은 56개 대학중 6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집단의 건강평가와 학생개개인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되어 보건교육적인 면에서 개인건강에 대한 자각심을 일깨우는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9)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59개 대학에서 남녀학생의 공통된 건강상담내용은 성병, 결핵, 정신과 질환등으로 나타나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10) 교내환경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대학은 82개 대학중 69.5%였으며 담당자 자격내용중 비전문인이 관리하고 있는 대학이 70.1%로써 학교환경위생관리에 소홀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1) 82개 대학중 학생건강관리 지도방법으로써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대학이 53.7%로 나타났으며 연중 보건사업계획시 이용되는 보건교육방법으로써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54.9%로써 나타나 학생건강을 주도해 나가는 조직으로서의 인식과 역할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 학교보건관리인력을 위한 보수교육현황은 82개 대학중 8.5%로서 거의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신체검사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집, 1983.

송 경 속

본 연구는 초, 중, 고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검사의 실시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1982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10일까지 서울시내 총 714 개교중 무작위추출한 526개교의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1982년 실시한 신체검사의 실시현황을 응답받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체검사의 실시율은 체질검사의 경우 총 95.4%, 체격검사의 경우 총 100%였다.

2. 신체검사의 총 책임자는 체질검사에서 양호교사인 경우가 전체의 72.8%였다. 체격검사에서는 양호교사인 경우가 전체의 41.1%였다.
3. 신체검사의 대상자는 체질검사의 경우,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총 75.5%, 요양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19.9%였다. 체격검사의 경우는 전체 학교에서 전교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요양호학생을 검사의 대상자로 하는 경우, 이들의 발견자 및 발견방법에서, 발견자가 양호교사인 경우가 총 59.5%로 가장 많았고, 발견방법으로 가정통신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총 59.5%로 가장 많았다.
5. 체질검사의 내용은 건강기록부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가 총 76.9%로 가장 많았다.
6. 체질검사의 검사자는 수련의인 경우가 총 74.2%였다.
7. 체질검사에 사용한 검사기구는 청진기 1가지만을 사용하는 학교가 총 7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8. 체질검사의 검사율은 총 82.9%였다.
9. 학생 1인당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약 11.0초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10. 건강이상으로 발견된 학생의 추후 관리방법으로는, 가정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그치는 학교가 총 49,8%로 가장 많았다.
11. 체격검사의 측정 담당자는, 일반교사인 경우가 총 74.7%로 가장 많았고, 기록 담당자는 학생인 경우가 총 50.5%였다.
12. 양호교사가 측정자에게 측정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총 68.6%였고, 교육소요시간이 1시간 미만인 학교가 총 98.0%였으며, 교육방법으로는 구두로 설명한 학교가 총 86.7%였다. 또 측정자 간에 측정방법을 일치 시키지 않은 학교가 총 69.3%였다.
13. 종목별 측정회수는 1회가 가장 많아 평균 80.0% 이상이었다.
14. 측정기구의 점검자는 양호교사인 경우가 총 60.3%로 가장 많았고, 점검방법으로는 동일인을 2회 이상 반복 측정함이 총 94.4%로 가장 많았다.
15. 검사 도중 측정기구의 점검을 하지 않은 학교가 총 50.3%였다.
16. 측정기구별 구입연도는 1976년 이전의 것이 약 40% 이상이었다.
17. 체격검사 후, 자료의 통계 처리는 총 58.6%의 학교에서 실시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서울시내 초, 중, 고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체검사는 철저히 실행되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체질 검사의 경우, 건강기록부상에 명시된 내용 전부를 검사내용으로 하여, 청진기 1가지 만을 검사 기구로 사용해 검사를 실시한 학교가 대부분임을 볼 때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충분한 검사 시간과 검사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검된 학생들에게도, 검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건강이상으로 발견된 학생들에게는 건강이상 내용을 알려주는 것

만으로 그치지 말고, 치료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알선함은 물론, 이들이 완치될 때까지 세심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체격검사의 경우는, 측정자에 대한 측정방법의 충분한 교육과 검사기구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 전문적인 사람에게 의뢰하여, 철저를 기하여야 함과 동시에 기구의 이상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점검일자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검사종목의 3회 측정, 소수점 2자리까지 측정등, 현재의 실시 상태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은 현재 실무에 알맞도록 이의 시정이 필요된다고 본다.

서울시내 여자중학교 양호실 요양학생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 논문, 1983.

윤 정 옥

양호실에서 요양을 취한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여자중학교 하나를 편의상 임의로 선정하여 1982년 3월초부터 1983년 2월말까지 양호실에서 1시간 이상 요양을 취한 213명에 대해서 양호일지, 환경조사서, 건강기록부 및 학적부를 자료로 하여 양호실 요양양상을 학년별, 월별, 요일별 및 개인적인 특성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학생수 2,380명 중 요양을 취한 학생은 8.9%인 213명이었으며 학년별 요양학생 분포를 보면 2학년이 10.2%로 가장 많았고 1학년(8.7%), 3학년(7.7%)의 순이었다.

2. 1년간 수업일수는 223일로 1일 평균 요양학생수는 1.0명이었으며 월별 요양학생 분포를 보면 11월이 1.8명으로 가장 높았고 6월이 1.2명 12월이 1.2명순이었다.

3. 요일별 요양학생 분포를 보면 수요일이 22.1%, 월요일이 20.7%, 화요일이 17.8%의 순서로 전반적으로 주초에 요양율이 높았다.

4. 월별 호소증상 종류의 분포를 보면 11월의 요양학생 80.4%가 감기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7월에는 57.1%가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요일별 호소증상 종류의 분포를 보면, 수요일에 복통 25.5%로 가장 많았고 목요일에는 두통이 15.0%로 많았다.

개인적인 특성별로 호소증상 종류 분포를 보면 복통은 학업성적이 우수할수록 많이 호소하였으며 두통은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적게 호소하였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많이 호소하였다. 신체충실지수라, 마에 속하는 학생과 경험상태가 좋은 가정의 학생